

‘공작’의 방해공작?…신의 독주 막았다

〈신과함께2〉

황정민 주지훈 이성민 최고 호흡
“영화 완성도 높다” 입소문의 힘
‘신과함께2’ 1000만 눈앞서 주춤

‘신과함께-인과 연’(신과함께2)을 쫓는 ‘공작’의 상승세가 매섭다.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흥행 대결이 여름 극장가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1편에 이어 1000만 돌파를 목전에 둔 ‘신과함께2’ 앞에 ‘공작’(감독 윤종빈·제작 사나이픽처스)이 등장하면서 기록 행진에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공작’이 8일 개봉 이후 초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 주말 흥행 대결의 정점인 11일 토요일 하루에 ‘공작’은 56만 관객(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을 동원, 1위인 ‘신과함께2’를 불과 8만 명 차이로 뒤쫓았다. 주말동안 두 영화가 확보한 스크린 수는 1300여개로 비슷하다.

일요일인 12일 오후 2시 이후로는 예매율 순위까지 뒤집혔다. 1일 개봉해 하루도 빠짐없이 예매율 정상을 지킨 ‘신과함께2’가 주춤하는 틈에 ‘공작’이 역



이성민

주지훈

황정민

전을 이뤘다. 격차는 2~3%P로 크지 않지만, ‘공작’의 분명한 상승세가 돋보이는 순위 역전이다.

‘공작’의 초반 흥행에 따라 극을 이끈 주역 황정민과 이성민, 주지훈의 감회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긴장과 부담 속에 나선 여름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첫 주말을 만족스러운 기록으로 통과한 덕분이다. 이에 더해 실화 바탕의 이야기기를 완성도 있게 만든 영화를 향한 공

정적인 평가가 입소문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1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황정민은 그야말로 한 시름 놓은 상황. 지난해 여름 대작 ‘군함도’를 내놓았던 그는 당시 영화의 상영 환경을 두고 벌어진 독과점 논란을 겪었고, 동시에 영화가 의도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상황까지 겪으면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이번 ‘공작’의 작업도 녹록치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다. 황정민은 “바닥을 쳤다”고 고백하면서까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때문에 현재 ‘공작’을 향해 나오는 관객의 긍정적인 평가, 뒤따르는 영화계의 호평이 그에겐 어느 때보다 각별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주역 주지훈은 ‘공작’을 통해 확실한 흥행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다른 주연작 ‘신과함께2’로 만족스러운 흥행 성과를 얻는 가운데 ‘공작’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현재 박스오피스 1, 2위 영화의 주연배우로 유일하게 기록되고 있다. “영화를 선택할 때 이야기도 좋지만 이제는 ‘관객’까지 고려하게 됐다”는 그가 최근 2~3년간 과감하고 대담한 도전을 거듭한 끝에 이루고 있는 값진 성과다.

이성민은 ‘공작’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배우로 꼽힌다. 관객으로부터 가장 후한 점수를 받고 있기도 하다. 여름 박시존에 주연영화를 내놓은 건 처음이지만 제몫을 뛰어넘는 활약으로 ‘공작’ 입소문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5일 개봉하는 그의 또 다른 주연작 ‘목격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으로 향한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진영

솔로음반·연기·프로듀서까지… B1A4 출신 진영의 홀로서기

솔로로서 연예생활 제2막을 열어가는 B1A4 출신 진영(정진영)이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넓혀나간다.

6월 말 전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생 기획사 ‘링크에잇’에서 새 출발한 그가 홀로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 재능을 보여 전소속사와의 재계약 기간부터 여러 기획사로부터 술한 러브콜을 받았던 그는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기획사와 손을 잡았다.

진영은 우선 9월9일 열리는 자신의 팬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솔로가수로서 음반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다수의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고 있어 그는 조만간 차기작을 결정하고 연기자로 나선다.

앞서 ‘구르미 그린 달빛’과 ‘팬도롱 또 똟’, ‘칠전팔기 구해라’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촬영을 마친 영화 ‘내 안의 그놈’ 개봉을 앞두고 있어 진영은 연기자로서도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은 작곡가와 프로듀서로도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최근 개인 스튜디오 ‘제인 그라운드’를 차리고 팬들에게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B1A4로 활동할 당시 팀의 앨범 프로듀싱을 맡아 ‘작곡돌’로도 이름을 알린 만큼 그는 자신의 솔로 앨범이나 동료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해 음악프로듀서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진영의 한 측근은 12일 “진영은 하나의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벌여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영은 9월9일 첫 번째 팬미팅 ‘플라이모어’를 앞두고 있다. 최근 입장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고, 현재 고가의 불법 압표까지 나돌고 있어 그가 가진 ‘스타파워’에 새삼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현장.jpg

폭염쯤이야…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8만5000명 열광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 락 페스티벌로 남은 ‘2018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10일부터 사흘간 8만5000명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올해 페스티벌에는 ‘인더스트리얼 락의 대부’ 나인 인치 네일스를 비롯해 린킨파크 멤버인 마이크 시노다, 일본 유명 밴드 서치모스, 아일랜드 출신의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 후바스탱크 등 해외 유명 밴드들이 참가했다. 국내 유지선으로는 자우림, 혁오, 글렌체크 등이 출연했다. 사진은 밴드 락스의 무대. 2006년 시작돼 올해 13회를 맞은 인천 펜타포트는 그간 1300여 팀의 국·내외 뮤지션이 출연하고 누적 관객수는 80만 명에 달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사진제공 | 엑스컴

100호 맞은 ‘월간 윤종신’…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음악 플랫폼서 문화 콘텐츠로 진화
“앞으로도 하고싶은 노래로 채울 것”

가수 윤종신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종신이 급변하는 음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한 음악 플랫폼 ‘월간 윤종신’이 8월호로 100호를 맞으면서 새삼 그의 기획력이 가요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0년 “그때그때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만들어야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올해로 벌써 9년이 됐다. 당시 그는 3월 ‘막걸리나’와 ‘그대 없이는 못살아’ 두 곡을 시작으로 매달 한번도 거르지 않고 ‘월간 윤종신’을 발표했고, 최근 100번

째 곡 ‘미스터 레알’까지 대중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미스터 레알’은 그동안 윤종신이 가끔 보여줬던 남성성에 감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속은 타들어가지만 강한 척하는 ‘허세’있는 남자들을 가사에 녹였다. 다이나믹듀오 최자, 랩 피쳐링했고, 뮤지비디오에서는 윤종신과 최자, 개그맨 유세윤이 호흡을 맞춰 코믹함까지 살렸다. 예능프로그램에서 빛나는 윤종신의 예능감까지 돋보인다는 평가다.

‘월간 윤종신’은 단순히 음악을 공개하



윤종신

는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영화와 미술, 책 등과 결합한 종합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월간 윤종신’의 성공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서도 ‘SM 스테이션’이라는 채널을 통해 매주 신곡을 내놓는 음악플랫폼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윤종신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초반에는 왜 그런 걸 하느냐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곳에서 협업제도가 잇따르는 등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월간 윤종신’은 그동안 축적된 노래가 아카이브가 되면서 이용자들이 과거 노래까지 찾아보게 만드는 장점까지 있다”고 소개했다.

윤종신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며 하고 싶은 음악과 좋아하는 음악만으로 ‘월간 윤종신’을 계속 채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백술미의 니혼테레비

‘굿닥터’(2013)



국내 시청률도 20% 넘겼는데… ‘굿닥터’ 일본판도 대기록 예감

일본에서 리메이크돼 방영중인 드라마 ‘굿닥터’(2013)의 인기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총 10부작의 일본판 ‘굿닥터’는 일본 후지TV가 목요일 오후 10시에 편성해 7월 12일부터 방송중이다. ‘목요극장’이라 불리는 이 시간대는 후지TV가 오래전부터 간판으로 내세운 ‘계즈구’(월요일 오후 9시대 드라마)와 함께 방송사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다. 편성만 보더라도 방송사가 ‘굿닥터’에 얼마나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지 잘 드러난다.

일본판 ‘굿닥터’는 현지드라마가 세운 기록들을 하나둘씩 경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를 찾기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굿닥터’ 1회는 11.5%, 2회 10.6%, 3회 11.6%, 4회 10.6%, 5회 12.2%를 기록했다. 특히 9일 방송된 5회의 12.2%는 ‘목요극장’에서 4년 만에 나온 최고 수치다. 이전까지 가장 높은 시청률은 2014년 10월 방송한 ‘디어 시스터’ 7회의 12%이다. 첫 회부터 5주 연속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한 것도 ‘디어 시스터’ 이후 4년 만이어서 현지 방송가의 관심이 높다. 현지 시청자들은 “리메이크와 원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20%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굿닥터’는 온라인 영상 조회수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후지TV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동영상서비스 ‘FOD’에서 ‘굿닥터’ 1회 다시보기 조회수는 80만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계즈구’ 작품인 ‘코드블루 시즌3’의 첫 회 기록을 제친 것으로, ‘목요극장’은 조회수 80만 돌파가 처음이다.

‘굿닥터’는 2013년 국내 방영 당시에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주원과 문채원의 열연에 힘입어 20부가 방송하는 내내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최고 시청률은 21.5%였다. 대학병원 소아외과를 배경으로 의사들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주원은 자폐증 증세의 서번트 증후군 주인공을 잘 소화해 감동을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bsm@donga.com